

중생의 행업에 의한 세계성취

본각스님

한국 중앙승가대학교 명예교수

1) 우주의 성립과 화엄경 「세계성취품」

2010년 9월 영국의 스티븐 호킹 (Stephen Hawking) 박사는 偉大한 設計 (The Grand Design)¹ 에서 宇宙는 神에 의해서 創造된 것이 아니라고 強調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 의 神에 의한 宇宙의 創造를 전제하는 基督教界와 宇宙 物理學界는 몇 백 개에 달하는 찬성 과 반대의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주의 成立에 관한 불교의 理論을 華嚴經 「世界成就品」에서 찾아보았다. 華嚴經 에서는 우주 성립의 근본 원인을 10종으로 들고 있다. 흥미롭게도 불교의 이러한 설명은 호킹이 위대한 설계 에서 제시한 주장, 곧 우주 는 신의 창조가 아니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變滅해 간다는 주장과 對應되는 부분이 있다. 本 論文에서는 먼저 화엄경 「세계성취품」의 내용을 살펴보고 Hawking의 이론 을 對應시켜서 고찰해 보 고자 한다.²

1 Stephen Hawking and Leonard Mlodinow, The Grand Design (New York: Bantam Books, 2010), p.117. 그의 설명에서 M이론은 우주 창조에 대한 다각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 포괄한 자연 법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본 논문은 本覺 著 華嚴教學 講論 第2章第5節(2018, 뜨란 출판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먼저 화엄경「세계성취품」은 보현보살이 일체의 世界海, 衆生海, 諸佛海, 法界海, 衆生業海, 衆生根欲海, 諸佛轉法輪海, 三世海, 如來願力海, 如來神變海 등 10종의 무량한 세계를 바 다(海)에 비유하여 羅列하고 있다.³ 이어지는 경문은 世界가 成立(成就)하는 데에 열 가지의 원인[因緣]이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如來神力故

法應如是故

一切衆生行業故

一切菩薩成一切智所得故

一切衆生及諸菩薩同集善根故

一切菩薩嚴淨國土願力故

一切菩薩成就不退行願故

一切菩薩清淨勝解自在故

一切如來善根所流及一切諸佛成道時自在勢力故

普賢菩薩自在願力故 (80卷本 華嚴經「世界成就品」, 大正藏 10.35a~b)

이상이 華嚴經「世界成就品」에서 말하는 세계가 이루어진 10종의 원인이다. 내용을 살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의 ‘如來神力’과 두 번째의 ‘法應如是’, 그리고 세 번째의 ‘衆生行業’과 마지막의 ‘普賢菩薩自在願力’이라고 본다. 중간의 내용은 보살의 智慧, 善根, 願力, 不退行, 自在, 如來의 勢力 등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다. 普賢菩薩은 이 내용을 다시 계승으로 제

3 華嚴經 권7, 「世界成就品」 (大正藏 10.34b).

시하고 있는데, 제일 첫째는 비로자나여래의 불가사의한 지혜신통의 경지라고 말한다.

두 번째 ‘法應如是’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은 없다. 계송에서 부연설명이 없는 것이 오히려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⁴ 그 다음은 중생의 欲樂 만 큼이나 菩薩修行의 원력이 그와 같이 넓고, 중생의 마음 씩씩이 또한 끝이 없으며, 중생 煩惱의 혼탁함과 分別은 한 가지 모양이 아니어서 그 마음을 따라서 業을 짓는 것도 不可思議하며 그로 인하여 모든 세계 현상이 벌 어진다는 것이다. 끝으로 한 생각에 삼세가 나타나서 일체의 세계가 다 이루어지며 비로자나 여래는 방편으로 이 모든 세계를 다 청정히 장엄한다는 뜻으로 계송을 마감한다.⁵

2) 太初의 세계에 대한 理論

한편, 阿含部에 속하는 起世經⁶ 은 경전 시작 첫 머리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국토는 어떻게 성립되었고 어떻게 散滅해가며 다시 성립한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 이러한 물음들을 들으신 부처님은 그들을 위하여 세계의 모습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통 다른 과학이나 종교 이론에서는 太初와 創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起世經 에서

4 60권본 및 80권본 화엄경 모두 보현보살의 계송에 ‘法應如是’에 대한 내용은 없다. 大正藏 9.409c, 10.35b 참조.

5 華嚴經 권7, 「普賢三昧品」(大正藏 10.35b), “所說無邊衆刹海 毘盧遮那悉嚴淨 世尊境界不思議 智慧神通亦如是 菩薩修行諸願海 普隨衆生心所欲 衆生心行廣無邊 菩薩國土遍十方 … 衆生煩惱所擾濁 分別欲樂非一相 隨心造業不思議 一切刹海斯成立 … 一念普現於三世 一切刹海皆成立 佛以方便悉入中 此是毘盧所嚴淨.”

6 大正藏 1권에 수록되어 있는 본 경전은 起世因本經, 장아함경 중의 世記經 등과 이역본이다.

는 바로 설명하기를 日月이 움직이는 곳은 四天下를 비추고 이러한 것이 四天世界이며, 千個의 日月이 비추는 곳을 一千世界이며, 千個의 달과 千個의 해와 千個의 須彌山王 등이 존재한다고 설하고 있다.⁷ 경전은 이어서 초기불교의 우주관이라고 하는 三千大千世界의 모든 현상을 자세히 이 이야기 한다. 단순한 생각으로 불교 우주관의 太初의 成立과 終末을 알고 싶어서 이 경전을 펼쳤다면 너무나 장황한 이야기에 답을 얻지 못한 채, 바로 책을 덮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처님이 우주 생성의 최초기에 대한 물음을 받고서 이미 생성되어 있는 세 계에 대해서 답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불교와 달리 기독교 聖經의「創世記」는 太初에 하나님이 天地를 創造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創世記」 그대로가 진실이라면 일체의 세계 창조에 대한 시비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現今에 이르기까지 創造論과 進化論을 시작으로 物理學과 生命工學에 이르기까지 創造說에 대한 是非는 이어지고 있다.

다시 Hawking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多重宇宙(multiverse)⁸가 저절로 발생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膨脹하는 우주 를 거품방울의 표면으로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주의 자연발생적인 양자적 창조는 끓는 물에서 수증기 거품방울들이 형성되는 것과 비슷하다. 수많은 미세한 거품방

7 起世經 권1,「閻浮洲品」(大正藏 1.310a~b).

8 호킹의 해석에 따르면 다중우주는 양자요동에 의해서 無에서 창조되는 미세한 우주들을 가리킨다. 그 우주들 중 소수는 임계 규모에 도달한 다음 급팽창하여 은하들과 별들을 탄생시킨다. 그리고 그런 우주들 가운데 최소한 하나는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탄생시킨다. 위의 책, p.137.

울들은 발생했다가 이내 사라진다. 그것들은 膨脹하지만 微視的인 규모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다시 收縮하는 소형 우주들을 의미한다. … 그러나 미세한 거품방울들 중 소수는 충분히 크게 확대되어 再 收縮의 위험을 벗어날 것이다. … 이 거품방울들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하는 우주들, 곧 인플레이션 단계의 우주들에 대응한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야기되는 팽창은 불균일 성을 지니고 이 불균일성이 각기 다른 銀河들과 별들을 형성시켰을 것이고 어떤 하나의 우주에서는 人間까지 形成되었을 것이다.⁹

Hawking은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아주 어린 우주에 존재했던 양자요동 (Quantum fluctuation) 의 산물이며, 이를 神의 창조라고 한다면 “神은 주사위 놀이를 한 것 (one could say that God really dose play dice) 에 불과할 것”이라며 신의 창조를 부정하고 있다.¹⁰

Hawking의 이러한 주장을 의지하여 앞의 기세경의 우주 발생에 관한 설명과 성경「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기세경은 그야말로 호킹이 말하는 다중우주의 세계를 보고 있는 듯하다. 그에 비해서 성경의 창세기는 신의 존재가 이미 있으면서 지구 하나를 지금 막 만들어 내고 있는 創造 行爲를 보는 듯하다. 따라서 기세경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는 多重宇宙 속에서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변화무쌍한

9 Hawking, 위의 책, pp.137-138.

10 Hawking, 위의 책, p.139.

세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삼스럽게 태초를 설명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Hawking이 말하는 다중우주 속에 끝없는 創發 현상이 무한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불교의 삼천대천세계의 이야기와 비슷하며, 그것을 기세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삼천대천세계라는 개념을 통하여 우주의 변화 과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전개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華嚴經「世界成就品」에 언급된 ‘如來의神力’은 끝 없이 重重無盡으로 전개되는 우주의 불가사의함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불가사의한 우주의 전개가 어떤 특별한 존재에 基因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성취품」의 두 번째 이유인 ‘法應如是’라고 暗示하고 있는 것이다.

3) 衆生の行業과 宇宙 環境의 문제

「세계성취품」에서 언급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세 번째의 이유는 衆生の行業이다. 결국 세 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要因은 여래의 신력과 自然法則과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중생 곧 生命이 벌이고 있는 行爲들이다. 따라서 불교의 입장에 따르면 중생의 行爲에 따라서 세계는 變化되어 간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제와 대응 되는 부분을 호킹의 이론에서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주목된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규칙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의해서 부과된다. 곧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특징들을 제한한다. 이 원리를 일컬어 弱한 人本原理 (weak anthropic principle) 또는 選擇原理 (selection principle)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우리가 존재하려

면 우주 환경이 생명을 허용하는 특징들만을 선택한다는 것과 관련된다는 의미이다.¹¹

그는 또한 “지구 궤도의 모양, 태양의 질량 따위의 人本的인 幸運들을 일컬어 環境的인 幸運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주변 세계에서 유래한 것들이지 根本的인 自然法則 들에서 由來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주의 현재 나이도 環境的인 행운이다. 왜냐하면 우주의 역사에는 현재보다 더 이른 시기도 있었고 더 늦은 시기도 있을 터이지만, 현재가 생명에게 友好的인 唯一한 시기이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¹² 라고 말한다. 호킹은 빅뱅 (big bang) 을 시작으로 많은 자연의 요소와 조건들이 오늘날의 지구를 만든 것은 다만 환경적 행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호킹은 지구가 발생한 것이 근본적인 자연의 법칙에서 유래한 것도, 더 나아가서는 神의 존재에 의한 것도 아니며, 이 우주 공간에서 펼쳐진 자연스런 우주의 진화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보고, 이를 ‘環境的인 幸運(the lucky environmental)’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인이 조금이라도 위험요소를 포함하면 안 되며, 그럴 경우 생명은 곧 바로 사멸해 간다는 원리를 우리는 현재의 핵폭발이나 기타의 생명 위험 요소들로부터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물리법칙들이 놀랄 만큼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인간이나 그와 유사한 생물은 절대로 탄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¹³ Hawking은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가 누리는 ‘환경적인 행운’을 우주를 창조하는 신

11 Hawking, 위의 책, pp.154-155

12 Hawking, 위의 책, p.155.

13 Hawking, 위의 책, p.161.

의 힘으로 돌리는 경향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¹⁴

여기에서 중생의 행업과 생명을 존재 가능하게 만든 우주 환경의 행운 이야기는 얼른 보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의 행위와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생명을 존재 가능하게 한 우주 환경을 논하고 있는 점에서는 서로 다른 입지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우주 환경의 구성 요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생명은 일순간에 파괴되고 사멸해 버린다. 호킹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이 존재하게 된 것은 어느 시점부 터인가를 논하기에 앞서서 생명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 환경이든 자연법칙이든 간에 어떠한 행위가 과거에 이루어졌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중생의 행업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생명이 ‘언제부 터’ 존재할 수 있는가를 묻기 이전에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탄생하고 환경에 의해서 성장하며 행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생명의 진행 과정을 상정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보현행원과 ‘위대한 설계’

기독교 신학에 따르면 창조주로서의 神은 ‘知的 設計(intelligent design)’¹⁵에 의하여 이 우주를 만들어내었다고 한다. 그런데 호킹은 이 용어에 對應하여 중력에 의한 자연법칙의 현상을 ‘偉大한 設計(grand design)’라고 표현하고 있다. 호킹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누가 혹은 무엇이 우주를 창조했느냐는 질문은 정당하지만, 그 질문에 神이

14 Hawking, 위의 책, pp.162~163.

15 Hawking, 위의 책, p.164. ‘지적 설계’는 미국 헌법이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금지하기 때문에 고안 명칭이며, 이는 신이 우주 창조의 설계자임을 암시하고 있다.

창조했다 고 대답하는 것은 원래의 질문을 누가 神을 창조했느냐는 새로운 질문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 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창조될 필요가 없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神이라고 명명한 다. 이런 식으로 신은 창조될 필요가 없는 존재임을 내세워 신의 존재를증명하는 방식을 最初 原因 論爭(the first cause argument)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과학의 범위 안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고 위의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다”¹⁶ 고 말한다.

호킹의 ‘偉大한 設計’라는 개념은 앞에 서술한 화엄경「세계성취품」의 10종인연에 대응시켜 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10종인연의 마지막 ‘보현보살의 자재한 서원의 힘’이란 우주를 구성 하는 중생과 보살과 여래의 善한 氣運의 總體的인 명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곧 普賢行願 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의미한다. 불교는 우리가 사는 우주를 법계, 곧 眞理(dharma)의 세계라고 이름하고 그 세계를 이룩하고 이끌어 가는 것은 중생의 行爲인 業이라고 보고 있다. 그 중생의 행위를 보살과 여래의 착한 행위[善行, 善業]로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이 화엄경「세계성취품」이 지향하는 세계일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것처럼 여래가 본 우주는 우리의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한 우주를 가리 키는 것이 아니며, 호킹이 말하는 重重無盡한 多重宇宙와 같은 것이다. 또한 우주의 역사를 논한다는 것은 이러한 다중우주 가운데 어떤 하나의 세계의 태초와 종말을 논하는 차원을 넘 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시작과 끝도 없는 우주의 한가운데서 우주의 시작과 끝을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초라한 識見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의 태초나 창조를 묻는 것은 아주 좁은 우주, 지구하나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흥미 있는 논제이지만, 이 지구를

¹⁶Hawking, 위의 책, p.172.

벗어나서 다중우주의 세계 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불품없는 논제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에서는 태초나 창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계에 펼쳐진 이 우주를 어떻게 수용하고 함께 움직여 다스려 갈 것인가 가 문제가 된다. 이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화엄경「세계성취품」에 의하면 衆生의行業(行爲)과 깨어있는 이들인 菩薩과 如來의 願力の 힘이며 善根의 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環境의 汚染과 쓰레기의 문제도 이 衆生의 行業에서 고찰해 보아야할 문제이다.